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문화공간이름, 김기창·박래현·천경자편 26~27일 개최

오는 26~27일 저녁 7시 30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문화공간이름에서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김기창, 박래현편과 천경자편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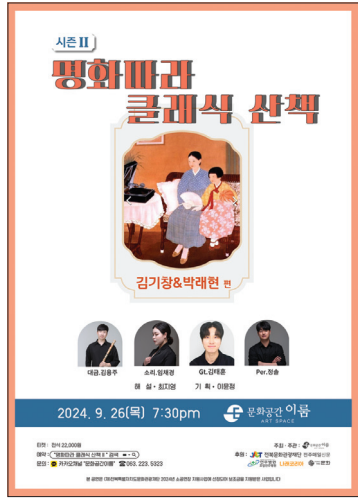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를 모으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테마를 담은 명화와 화가, 클래식 작곡가와 음악을 접함으로 인해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문화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8월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9월에는 청각장애를 딛고 한국미술계에 커다란 족적과 영향을 남긴 거장 김기창과 그의 부인 박래현 화가를 소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널리 알리며 이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의 작품에서 풍기는 한국적인 분위기에 맞게 대금 김용주, 소리 임재경, 기타 김태훈, 타악 정슬 등 전북지역 연주자들을 섭외하여 요즘 떠오르는 퓨전국악 DozaRaz, 놀이터, 액막이 등의 다채로운 연주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다음날, 천경자편의 키워드는 '여성'으로 독립적인 예술가 정신을 가진 천경자에게 어울리는 키워드이다. 당시로는 드물게 해외여행을 즐긴 천경자는 타히티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스페치 여행을 12번이나 다녀며 '천경자 풍물화'라는 개성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우수에 젖은 이국적인 여인 그림은 타히티 여행 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후 노란 옷을 입고 꽃이 가득 달린 화려한 모자를 쓴 '갈레르니'를 시작으로 '황금의 비' 등을 그렸다. 1955년에는 대한미술협회전 대통령상, 198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 1989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신진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천경자는 올해가 탄생 100주년의 해여서 더 의미 있는 무대이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천경자 화가의 진품 미술 작품들과 유품들이 공연장에 전시되어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김기창&박래현편 포스터



천경자편 포스터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천경자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정애련 작곡가가 만든 곡들이 연주된다.

'한 여인의 전설', '별 개는 밤' 중 '한 여인의 전설'은 천경자 화백을 진정으로 사랑한 김생기 대표가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사하고 정애련 작곡가가 작곡하여 탄생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의 취지와 맞게 더욱 의미 있는 연주곡이라 할 수 있고, 이날 프로그램 중 노래뿐 아니라 Two 피아노곡도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W. Bikom의 The Garden of Eden four Rags for Two Pianos 중 The Serpent's Kiss 등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껴 볼 수 있어, 눈은 작품에 즐겁고 귀는 연주에 즐거울수 있는 무대가 기대된다.

천경자편에는 메조소프라노 신진희, 베이스 이대혁, 피아니스트 이윤정, 이영신 4명의 연주자들이 출연할 예정이고, 천경자편은 이번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에서 진품 미술 작품과 유품들을 볼 수 있는 공연인 만큼 눈길어 가는 부분이다.

이번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에서는 ESG경영 실천 일환으로 종이 인쇄물 대신 웹 포스터로 대체하여 포스터의 각 공연편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그 공연의 정보를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어 매번 버려지는 종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연장에 오거나 도보로 온 관객에게 다음 공연 티켓을 선물로 주는 제

미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문화공간이름의 기획력이 더욱 빛나는 부분이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작년 미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듣고 싶었다는 관객분들의 니즈를 파악해 미술 작품에 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 주실 전) 전북일보 전북 타임즈 칼럼리스트 이지 현) 한국미술, 전북미술 홍보 기획 이사 겸 전주미협 홍보기획분과 위원장인 최지영 작가님을 모셔서 작품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욱 높여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공간이름 이윤정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차별화된 문화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각 명화의 감정과 주제를 담은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음악 장르가 만나는 공간으로, 도민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27일 공연에서는 천경자 작품 중 원화 2점과 친필엽서 1점을 비롯해서 천경자 화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21일부터 전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9월 공연 역시 티켓은 정석 2만2,000원이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통활쏘기'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카자흐스탄국가위원회와 현지서 공동 진행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는 지난 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에서 유네스코카자흐스탄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유문화유산으로서 유목민 전통활쏘기의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제5회 세계유목민 축제 기간 중 국제학술회의 특별행사로, 한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4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의 전통활쏘기 전문가, 국가대표 양궁코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1부에서는 전통활쏘기의 현대적 의미란 주제로 한국, 카자흐스탄, 몽골의 전통활쏘기가 과거부터 현대까지 변화해 온 가치에 대해 살펴봤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통활쏘기의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향후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전통활쏘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등을 포



함한 상호 문화적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향후 전통활쏘기를 포함한 공유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5회 세계유목민축제는 8~13일까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다. 축제에는 약 100개국에서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해경 겸임교수, 제24회 대한민국한지대전 '금상'

전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전해경 겸임교수(사진)는 '제24회 대한민국한지대전'에서 금상(전통부문 1등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원주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한지대전은 한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한지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전으로, 심사를 거쳐 전통 부문 17점, 현대 부문 50점 등 6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중 전해경 겸임교수는 전통 지승 교미를 주제로 한 '선비의 방'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해경 겸임교수는 "이번 작품은 전통 공예의 재현을 통한 작품의 재해석 접근으로서 선조들의 감성과 예술적 표현이 얼마나 예술적 심미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자 노력했다"며 "전통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 공예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축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온 가족 함께 즐기는 '십이간지 웃놀이'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2일까지 1층 우리놀이 체험공간 놀이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십이간지 웃놀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놀이미션 적인 웃놀이판을 활용한 '십이간지 웃놀이', 세시풍속을 알아보는 '초성퀴즈'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가위를 맞아 전통놀이를 통해 가족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와 관련, 웃놀이 판을 완주한 체험객에게는 추위의 봄기회를 제공, 1등에게는 전통놀이 보드게임인 '함행어서 출두요!'가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는 현장 예약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4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